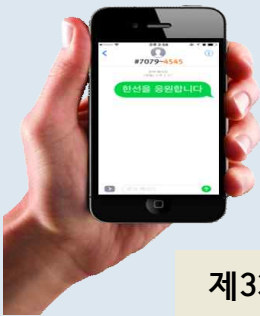


#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통일 전략  
[발제자]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일 시] 2020년 04월 16일(목) 오전 10시  
▶ 온라인 You Tube 영상



☒ 문자 후원  
#7079-4545

제33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 요 약

■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발병했다. 4월 13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사망자는 217명에 이른다. 전 세계 확진자는 1,798,885명, 사망자는 113,100명으로 세계적 팬데믹 상황이다. 인류 역사 중 최악의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으로 기존의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근대 자본주의 토양이 되었듯이 팬데믹은 경제사적

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계기가 된다.

■ 이번 ‘코로나19’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북한 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중요한 전략으로 급부상했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력으로 경제를 성장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결국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방증이다.

■ 현재 북한의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밀고 당김’의 통일 전략을 통해 북한 개혁 개방의 실마리를 찾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특히 북한의 주민과 당국을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 북한 주민 스스로 한국의 통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로 정보를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 팬데믹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

- ◆ 흑사병은 인류 역사에 기록된 최악의 전염병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만 최소 7,500만 명에서 2억 명이 사망했다. 당시 의료과학적 발달이 취약했기에 상당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흑사병 이후 기존의 봉건제도가 몰락하고 르네상스의 시대가 왔듯 경제사적으로 팬데믹(역병)은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었다.
- ◆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발병했다. 4월 13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사망자는 217명에 이른다. 전 세계 확진자는 1,798,885명, 사망자는 113,100명에 이른 이 질병은 또 하나의 세계적 팬데믹 현상이다.

## ◆ 팬데믹과 새로운 질서

- ◆ ‘코로나19’로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인류는 늘 위기국면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했다. 기존 질서에 대한 반성과 IT·비대면 접촉의 일상화 등 새로운 질서 체계가 자연스럽게 구축되고 있다.
- ◆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외교·안보 등 전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체계가 요구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통해 정보를 통제, 은폐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훼손되었다. 중국 중심이었던 글로벌 공급체계의 재구축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같은 공산체제인 북한 역시 위협받고 있다. 또한, 세계화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지주의, 민족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 ◆ 북한의 현황

- ◆ 지난해 말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정면돌파전’으로 맞서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더불어 닥쳐온 ‘코로나 19’는 북한 경제를 더 옥죄고 있다.
- ◆ 4월 13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재자원화법’이 중요한 전략으로 급부상했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고서라도 자력으로 경제를 성장한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결국 북한의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방증이다.

## ◆ 통일 전략

- ◆ 대한민국의 상황도 어렵지만, 북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어려움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통일 전략에는 소위 말해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드는 ‘밀당’이 필요하다. ‘밀고 당김’의 전략을 통해 북한 개혁 개방의 실마리를 찾고 협상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 ◆ 통일을 지향하는 대북정책을 펼치되 북한의 주민과 당국을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 북한 내 민주 정부가 수립되면 이를 기반으로 평화적 방법에 따른 통일이 가능하다. 즉, 북한 주민이 한국의 통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로 정보를 유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 대북정책은 기존의 햇볕·포용정책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봉쇄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선통합 후통일 정책에서 독일의 통일 정책과 같이 선통일 후통합으로의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 통일 이후의 남북한 사회경제통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통일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M&A(인수합병)와 같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다양성을 기반으로 사상, 경제, 군사의 통일 전략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